요코테의 성 아래 도시와 이를 내려다보는 천수각

요코테 공원 전망대에서는 조카이 산과 요코테의 거리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천수각 양식의 이 전망대는 1965 년에 지어진 비교적 신식 건물입니다. 한편 전망대가 있는 요코테 공원은 실제로 19 세기 중반까지 수백 년간 존재한 요코테 성의 부지였던 곳입니다. 공원 북쪽 끝에 있는 전망대는 요코테 성의 니노마루(성의 중심 건물을 둘러싼 구역)의 터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옛날에 세력을 떨쳤던 사타케 가문 조다이(성주가 자리를 비웠을 때 성을 관리하던 가신)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당시의 성도 저택도 없지만, 옛날에 성을 지배한 두 세력이 현재 요코테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노데라 가문의 등장과 성 건축

요코테 성에는 당초에 이 성을 구축한 오노데라 가문이 거주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1185~1333 년)를 섬긴 포상으로 12 세기 후반에 이 지역의 지배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후 오노데라 가문은 현재 아키타현 남부까지 영토를 확장하여 더 많은 성을 지었습니다. 1550 년경 요코테 성에는 건축 공사로 가파른 도루이(흙으로 만든 방어벽)가 지어졌으며, 도루이가 무너지지 않도록 부추를 심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끄러지기 쉬운 부추는 적의 침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식량 보급로가 막혔을 때는 비상식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노데라 가문과 함께하던 가신과 가족도 성 주변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생활 속에서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였고, 상인이나 장인이 요코테에 이주하면서 성 아래 도시는 서서히 확장되어 갔습니다.

요코테의 지배권을 사타케 가문이 거머쥐다

1600 년 전후의 전국 시대에 오노데라 가문은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측의 동군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돌아간 후 옛날에 빼앗긴 영역을 되찾기 위해 동군 모가미 가문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이 때문에 도쿠가와는 오노데라 가문을 적군으로 간주하여 서쪽 지방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1602 년, 요코테 성 및 주변 영역은 아키타에 새롭게 배치된 사타케 요시노부(1570~1633 년)에게 주어졌습니다.

요코테에서 지배권을 거머쥔 사타케 가문은 요코테 강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는 공사를 시행하여 토지를 넓혔습니다. 그 결과 요코테 성 주변의 토지를 하사받은 가신들은 그곳에 저택을 지었고 건너편 강가에는 상인들이 주거 공간과 가게를 지었습니다.

이후 요코테 성은 도쿠가와 막부가 멸망한 보신 전쟁(1868 년)에서 파괴될 때까지 아키타번의 보조 성으로 존재했습니다. 성의 잔존 건축물은 초대 번주인 사타케 요시노부와 마지막 번주가 된 사타케 요시타카를 모시는 아키타 신사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902 년에는 공원으로 정비되었고, 지금도 눈 축제 등의 행사 개최지로 쓰이고 있습니다.